

나눔+곳간 시민 만족도 높여 함께 해요, 우리들의 시간여행

익산시, 대체 이용자·배달서비스 확대... 이용자 편의 개선

익산시는 더 많은 위기가구가 효율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눔+곳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이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만족도를 높이고 위기가구를 위한 보다 강화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19일 시는 지난해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나눔+곳간 이용 횟수와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용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물품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해 비치했다. 나눔+곳간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고령자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민,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은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가 대신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

용자 편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가족만 대신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와 함께 물품 배달 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행복나눔마켓과 사회복지협의회 심부름센터는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한 물품을 차량으로 전달하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독거어르신 이용객 수가 늘어 지난해보다 배달서비스 이

용자가 두 배로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나이로움' 바자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부로 매주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익산행복나눔마켓에서 기부자들의 후원금품으로 결식 우려자나 저소득 주민 300여명에게 식사를 직접 준비해 도시락으로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현장 배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보다 효율적인 바자 운영을 위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처음 이용자인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74.4%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일부 제기된 불편 사항은 추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자 모집

군산시는 2022 군산시간여행축제 시민 참여 프로그램(시민기획프로그램, 프리마켓, 주전부리) 운영자를 오는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10번째로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체험, 공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꾸미고 만들어가는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과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 기획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축제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축제 기간 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가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12개팀이 선정되고 최대 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프리마켓(Free Market) 셀러는 의류, 공방공예, 잡화 등 시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직접 추첨을 통하여 40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전부리 코너는 축제에 어울리는 먹거리를 판매할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규모 초과 시

심사를 통하여 8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메뉴의 독창성, 적정성, 대중성, 가격의 적정성이다.

운영기간은 축제 기간인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4일이며, 운영장소는 시간여행마을 일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오는 8월 5일까지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admin@localfriendly.co.kr)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중복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참여자만이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운영자에게 부스 및 테이블 등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시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http://festival.gnsn.gov.kr) 및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4-3302/333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지방소멸위기 청년 일자리로 잡는다

황철호 부시장,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찾아 사업설명

군산시가 계속되는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방향을 정하고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자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일자리가 매칭된 청년에는 2년간 인건비 80%(160만원)와 기타지원

비(자기개발비 등), 자율지원비(주거비, 생활지원비, 교통비 등)가 지원되며 3년 차에는 지역정착금 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는 올해 150명 채용자원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추진, 목표인원을 넘어 총 152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계속사업까지 포함 총 358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내년도에 조선산업분야 전기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 농수산 식품산업 분야에 청년일자리 집중 지원하고 자 채용 목표 인원을 올해 대비 3.8배 증가한 570여명으로 수립하고 총사업비 181억 2600만원 중 국비 7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했다.

이를 위해 황철호 부시장은 19일 행안부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을 찾아, 군산시 사업계획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요청을 적극 건의했다.

황 부시장은 "군산시가 산업·고용 위기와 더불어 지역소멸위기까지 맞고 있다. 5년 만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앞두고 있고 지역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청년일자리 지원이 절실하다"며 "일자리로 찾아온 청년들이 군산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생활비 등 정착지원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청년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 강소특구, 연차평가 '우수' 등급 받아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강소특구 연차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강소특구의 경쟁적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국 12개 강소특구를 대상으로 추진된 연차평가는 사업성과, 입주기관 만족도, 특구발전 기여도, 지역특화 클러스터 완성도 등의 지표를 평가했다. 1차적으로 지자체의 전문가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5월 과기부의 상위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군산 강소특구는 지난 2021년도에 연구소기업 설립 7개사, 기술이전 25건, 매출액 62억원, 일자리 창출 197명, 투자연계 28억원 등 대부분의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특화분야인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 활성화를 위해 에디스모터스, 코스텍, 발산공업 등 종합제조사를 구심체로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 업무협약 체결과 수혜기업 성과발표회를 통한 성과 공유·확산 등의 혁신시계를 이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 강소특구는 지난해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2년차 사업

추진을 위해 특화성장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했으며, 현재 특화기업 기술 Jump-up 기술지원, Techup 기술지원, Value-up 컨설팅 지원, 시립·인공·특허조사·법률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요-공급기업간 상생협력의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상생협력형 사업 화지원 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직접적인 수요·매출이 연계될 수 있는 기술시화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기술이전사업화(R&BD) 지원사업에 군산 소재 기업 8개사가 선정되어 신제품 개발 및 신사업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특구 내 기업인 (주)SW케이컬즈와 (주)NRB가 총 11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2022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달성하며 R&D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혁신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코로나 재유행 대비 비상방역대책 마련

익산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의료대응체계 구축 등 비상대응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시민 이용편의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존 기능별로 분산됐던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명칭을 일원화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지정된 호흡기환자 진

료센터 8개소 중 코로나 진단검사, 대면·비대면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병·의원 44개소를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운영하고, 기타 호흡기환자 대응체계도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일반의료기관 중심의 확진자 대면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 참여할 신규 동네 병·의원을 모집하고 원스톱

진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누리집과 익산시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익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3개소(익산제일병원, 송현성소아청소년과의원, 365연합의원)를 운영 중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코로나 재유행 대비 긴급 현장 간담회 개최

익산시가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형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위생업소민·관 합동 방역 현장 간담회를 긴급 실시했다.

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현재 주간위험도(중대본 발표)가 '중간단계'가 '높음' 단계로 전환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당부하기 위해 긴급 현장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긴급 현장 간담회는 18일 의식업·악기·시지부 등 식품접객업소 4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이에 앞서 15일에 숙박업·익산시지부 등 공공위생업소 4개 기관 또한 긴급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 재확산 방역수칙 이행에 동참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환기소독 실시 △간막이 설치 △영업자 및 종사자 예방접종 완료 권장 등을 적극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실시

군산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국지 30,355필지/건물 767동에 대해 공유재산 정기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행정재산으로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그 목적을 상실한 유류부지에 대해 재산 관리부서와 연계해 조사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고 공유재산시스템에 자료를 현행화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유류상태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 전대, 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사용허가(대부)진환을 유도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2개 이상 인접토지의 합병 등 토지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자체 활용이 어려운 토지는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